

‘함께함평, 평생함평’...지역 복지 표준 모델 자리매김

함평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함평형 통합 돌봄서비스 ‘함께함평, 평생함평’이 시행 두 달 만에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새롭게 제공한 통합 돌봄서비스 ‘함께함평, 평생함평’ 사업을 통해 2달 동안 약 200건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제공했다.

함평형 통합 돌봄 ‘함께함평, 평생함평’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

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형 복지 서비스다.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통합 돌봄 전담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 내 의료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거미줄 같은 밀착 협력 체계를 촘촘히 다져왔다.

특히 지역 병원과 방문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함평형 특화 서비스’를 대거 개발했다. 여기에는 영양 만점 식사 지원, 이·미

주민 체감형 돌봄서비스...두 달 만에 200건 연계·지역 병원 동행부터 주거 개선까지...촘촘 돌봄망 구축 성과

용 서비스, 방문 목욕, 안심하고 동행하는 병원 방문 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9개 읍·면사무소 전체에 ‘통합 지원 창구’를 개설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현재 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선제 발굴하고 공공·민간 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르신들이 요양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완벽한 실현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장기 입원을 대폭 줄이고, 가족들이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돌봄 부담과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군은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사 지원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방문 이용 △방문 목욕 △주거 환경 개선 등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연계·지원하고 있다.

특히 읍면 통합 돌봄 업무 담당자와 군

주무 부서인 가족행복과 돌봄통합팀, 서비스 제공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원스톱복지 전달 체계를 가동하는 등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통합 돌봄서비스 시작 후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군민께서 보여주는 높은 관심도는 그만큼 지역 내 돌봄 수요가 절실했다는 뜻”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장성군 민원실, 소통·배려 공간 탈바꿈

민원 1·2실 분리 운영 ‘효율·편의성’ 극대화 상담실·폰부스 등 설치

장성군 민원실이 딱딱한 행정 창구의 모습에서 벗어나 소통과 배려의 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청사 재배치 공사를 통해 민원실을 민원1실과 민원2실로 분리·확장하고 군민 편의시설을 대폭 보강했다.

청사를 찾은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민원실은 중앙계단을 기준으로 우측에 민원1실, 좌측에 민원2실이 배치돼 있다. 무엇보다 출입문과 문턱, 시야를 가리던 벽체를 없애고 자동 유리문과 유리벽을 설치해 개방감을 높였다.

군은 기존의 폐쇄적인 공간 구조를 개선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사 완

료 이후 100여일이 지난 현재 민원실은 ‘열린 행정’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원실 기능을 분리한 것도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민원1실은 각종 민원 접수와 제증명 발급, 여권,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생활 밀착형 업무를 담당한다. 민원2실은 건축 인허가와 개발행위, 자동차 등록, 지방세, 지적 업무 등 전문적인 상담과 협의가 필요한 민원을 전담한다.

군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반영됐다. 민원실 내부에는 민감한 내용을 보다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개인상담실 2곳이 마련됐다.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이 가능해 개인정보 보호와 상담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입구에는 통화 중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용 ‘폰부스’도 설치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전화통화가 필요한 군민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장성군 민원실이 딱딱한 행정 창구의 모습에서 벗어나 소통과 배려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사진제공=장성군청



장성군 평림담 장미공원 ‘향긋한 유혹’ 장성군 평림담 장미공원에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건너온 수십 종의 장미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사진제공=장성군청

보랏빛 꽃물결...강진 ‘코끼리마늘꽃 3Days’ 열린다

12일 작천면 부흥마을...체험·먹거리·인생사진 한자리

매년 6월이 되면 보랏빛 꽃밭이 장관을 이루는 강진군 작천면 부흥마을에서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제3회 작천 코끼리마늘꽃 3Days’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코끼리마늘꽃 군락지를 배경으로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 주도형 행사로 운영된다.

행사장에 들어서면 보랏빛 코끼리마늘꽃이 끝없이 펼쳐진 장관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여기에 해바라기와 벼들마편초, 나비바늘꽃 등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져 초여름 정원을 연상케 하며, 곳곳에 조성된 포토존은 함께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꽃 감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갈릭피자 만들기 체험과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이 마련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코끼리마늘꽃과 커피거루를 활용해 만드는 꽃바구니 체험은 자연의

향기와 감성을 함께 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장도 운영된다. 행사장 중앙광장에 마련된 물놀이 공간은 초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특별한 쉼터가 될 전망이다. 현장에 촬영한 사진을 무료로 인화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돼 축제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먹거리와 살거리도 풍성하다. 행사장에서는 닭계장과 냉공국수 등 지역 특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옥수수과 아이스크림 등을 즐길 수 있는 마을장터도 운영돼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영광 칠산해역에 대해 방류 450만 마리...소득 향상 기대

영광군은 최근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어린 대하 450만마리를 칠산해역에 방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대하는 평균 크기 1.2cm 이상으로 서·남해안에서 서식한 새우류 중 가장 크다. 또 연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는 정착성 어류로 방류 효과가 매우 높다.

여기에 올해 가을쯤 상품기체가 있는 15cm 정도로 성장해 지역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하는 고단백, 무질질, 키토산 등 영양분이 풍부하고, 맛도 훌륭한 가을철 인기 제철 음식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매우 높다.

여기에 군은 칠산해역에 보리새우와 바지락, 백합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해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생산력 증대에 앞장 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수산종자의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자강도시로 도약하는 일류순천
남해안권 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올라섭니다!